

29. 부정(不定) 표현하기

29강에서는…

- 1) 구어체의 부정(不定) 표현에 대해 알아봅시다.
- 2) 의문사의 부정(不定) 표현에 대해 알아봅시다.
- 3) 태국어의 분할 대명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금기

1. 구어체의 부정(不定) 표현

1.1 의문사 + กี่ได้

เลย	르 + -이	[접속사] 그래서
เลี้ยงส่ง	리-'앙 쏭	송별회를 열다, 환송회를 베풀다
เห็น	เหن	보다
ปักழอย	빠-'구 써-이	골목 입구
กี่	꺼-	~도, 역시
ได้	다이	[조동사] 가능하다

คุณคิมจะกลับเกาหลีแล้ว เลยจะเลี้ยงส่งคุณคิมเย็นนี้

(쿤 킴 짜 끌랍 까올리- 래-'우, 르 + -이 짜 리-'앙 쏭 쿤 킴 엔 나-)

: 김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가게 되어서, 오늘 저녁 김 선생님의 송별회를 열려고 해요.

[EBS 초급 태국어]

ไปกินเลี้ยงสังทิ้่หนดีค่ะ

(빠이 낀 리-'앙 쏭 티- 나이 디- 카)

: 어디에서 송별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สำหรับผม ทิ'หนก็ได้ครับ

(쌈랍 품, 티- 나이 꺼- 다이 크립)

: 저로서는 어디든 좋은데요.

แต่เห็นคุณคิมชอบกินที่ร้านอาหารตรงปากซอยนะครับ

(때- 헨 쿤 김 처-ㅂ 낀 티- 라-ㄴ 아-하-ㄴ 뜨롱 빠-ㄱ 써-이 나 크립)

: 그런데 김 선생님은 골목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는 듯해요.

ว่าแต่จะเชิญใครบ้างครับ

(와- 때- 짜 츠 ㅓ-ㄴ 크라이 바-ㅇ 크립)

: 그건 그렇고, 누구 누구를 초대할 건가요?

คุณช่วยคิดด้วยนะค่ะ ใครก็ได้ที่รู้จักคุณคิมค่ะ

(쿤 추-^아이 칫 두-^아이 나카, 크라이 꺼- 다이 티- 루- 짹 쿤 킴 카)

: 당신도 같이 생각해보세요. 김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괜찮아요.

1.2 동작성 동사 + (목적어) + ก็ได้

เฉย	츠 ㅓ-이	그냥, 생각이 없다
แล้วแต่	래-'우 때-	~를 따르다, ~에 달려있다, ~나름이다

[EBS 초급 태국어]

นี่เวลาเที่ยงแล้ว คุณพิวข้าวใหม่กะ

([^]นิ- 웨-[^]ร์拉- 티[^]-앙 래[^]-우, คุน 히[^]우 카[^]-우 마이 카)

: 지금 정오가 다 되었는데, 배고프세요?

ผอมเฉย ๆ ครับ กินก็ได้ ไม่กินก็ได้

(폼 ชื้-[^]이 ชื้-[^]이 คร랍, ณ เก-[^]다이 마이 ณ เก-[^]다이)

: 저는 그냥 그래요. 먹어도 돼고, 안 먹어도 돼요.

แล้วแต่คุณจะดีกว่าครับ

(래[^]-우 때- คุน 짜 디- 꽈- คร랍)

: 당신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겠어요.

2. 의문사의 부정(不定) 표현

- 문장 내 의문사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의미를 갖기 위해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대체하기 위해 의문사를 사용한 경우

ອະໄຣ	아라이	무엇, 무슨 → 무엇이든, 무엇이 되었든
ເມື່ອໄຣ	므- [^] 아라이	언제 → 언제든지
ໃໝ່ນ	나이	어디서 → 어디든지, 이왕이면, 어쨌든
ອຢາງໄຣ(ຢັງໃຈ)	야- [^] 아라이(양 응아이)	어떻게 → 어찌되었든, 어쨌든
ໃຄຣ	크라이	누구, 누가 → 누구든지

[EBS 초급 태국어]

① คุณชื่ออะไร

(쿤 ช- 아라이)

: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เดี๋ยวนี้อะไรๆ ก็แพงขึ้น

(디-아우 니- 아라이 아라이 꺼- 패-օ 쿤)

: 요즘은 뭐든지 다 비싸졌다.

② ประชุมจะเสร็จเมื่อไร

(쁘라惆 짜 셋 므-아라이)

: 회의가 언제 끝나나요?

เธอจะกลับเมื่อไร ผู้จะรออยู่ที่นี่

(트- ชา 끌랍 므-아라이, 품 짜 러- 유- 티- 니-)

: 그녀가 언제 돌아오든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③ คุณจะไปไหน

(쿤 짜 빠이 나이)

: 당신은 어디를 가려고 하나요?

ไหนๆ มาถึงนี่แล้ว ก็ต้องกินให้อร่อย

(나이 나이 마- 퉁 니- 래 우, 꺼- 떠-օ 낀 하이 아려-이)

: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맛있게 먹어야지.

[EBS 초급 태국어]

④ คุณมาที่นี่ยังไง

(쿤 마- ^- 니- 양 응아이)

: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나요?

ยังไงๆ เขาก็มีข้อดีของเข้า

(양 응아이 양 응아이 카오 꺼- 미- 커- 디- 커-○ 카오)

: 어쨌든 그도 그만의 장점이 있다.

⑤ คนนี้ใคร

(콘 니- 크라이)

: 이 사람은 누구예요?

ใครๆ ก็รักเรอทั้งนั้น

(크라이 크라이 꺼- 락 트- 탕 난-)

: 누구든지 모두 다 그녀를 좋아한다.

3. 분할 대명사

복수의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로, 여러 그룹이 있는 경우 각각의 그룹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พวก	따-○	[수식사] 다른 [분할 대명사] 각자, 각각, 제각기
บาง	바^-○	[수식사] 좀, 약간 [분할 대명사] 일부

[EBS 초급 태국어]

① [수식사] เขาไปเที่ยวต่างประเทศ

(카오 빠이 티-아우 따-○ 쁘라테-ㅅ)

: 그는 해외에 놀러갔다.

[분할 대명사] ในบริษัทของผมต่างคนต่างทำงานไม่ค่อยยุ่งกัน

(나이 버-리쓰 커-○ 폼 따-○ 콘 따-○ 탐 응아-ㄴ, 마이 커-이 융 깐)

: 우리 회사는 각자 일하고, 서로 그다지 간섭하지 않는다.

② [수식사] เธอไปเที่ยวเกาหลีมาแล้ว ที่นั้น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

(트 - 빠이 티-아우 까올리- 마- 래-우, 티- 난 뻔 양 응아이 바-○)

: 너 한국에 놀러갔다 왔는데, 그곳은 좀 어때?

[분할 대명사] จะม่วงที่ซ้อมมาจากตลาด บางกอกสุก บางกอกดิบ

(마무-앙 티- 쓰- 마- 짜- 딸라-ㅅ, 바-○ 꺼- 쑥, 바-○ 꺼- 딥)

: 시장에서 사온 망고는 일부는 익었고, 일부는 안 익었다.

4. 대화: 부정(不定) 표현하기

น้ำ: คุณคิมจะกลับเกาหลีแล้ว เลยจะเลี้ยงส่งคุณคิมเย็นนี้

(나-ㅁ) (쿤 킴 짜 끌랍 까올리- 래-우, 르 -이 짜 리-앙 쏭 쿤 킴 옌 니-)

: 김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가게 되어서,

오늘 저녁 김 선생님의 송별회를 열려고 해요.

[EBS 초급 태국어]

ไปกินเลี้ยงสังทิ้งดีค่ะ

(빠이 낀 리-'앙 쏭 티- 나이 디- 카)

: 어디에서 송별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ปอนด์: สำหรับผม ที่ไหนก็ได้ครับ

(빠-ㄴ) (쌈밥 ฟوم, 티- 나이 꺼- 다이 크rap)

: 저로서는 어디든 좋은데요.

แต่เห็นคุณคิมชอบกินที่ร้านอาหารตรงปากซอยนะครับ

(때- แฮน กุน คิม ชุ-ㅂ 낀 티- 라-ㄴ 아-하-ㄴ 뜨롱 빠-ㄱ 써-이 나 크rap)

: 그런데 김 선생님은 골목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는 듯해요.

ว่าแต่จะเชิญใครบ้างครับ

(와- 때- 짜 츠 ㅓ-ㄴ 크라이 바-ㅇ 크rap)

: 그건 그렇고, 누구 누구를 초대할 건가요?

น้ำ: คุณช่วยคิดด้วยนะครับ ใครก็ได้ที่รู้จักคุณคิมค่ะ

(나-ㅁ) (쿤 추-아이 컷 두-아이 낙카, 크라이 꺼- 다이 티- 루- 짹 쿤 킴 카)

: 당신도 같이 생각해보세요. 김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괜찮아요.

ปอนด์: ใครๆ ก็รักคุณคิมทั้งนั้น ก็คงอยากไปทุกคนเหละครับ

(빠-ㄴ) (크라이 크라이 꺼- 락 쿤 킴 탕 난, 꺼- 콩 야-ㄱ 빠이 툭 콘 래 크rap)

: 누구든지 모두 다 김 선생님을 좋아해서, 아마 다 가고 싶을 거예요.

[EBS 초급 태국어]

แต่ต่างคนต่างมีงาน ไม่รู้ว่าจะไปได้หรือเปล่า

(때- 따-○ 콘 따-○ 미- 응아-ㄴ, 마이 루- 와- 짜 빠이 다이 르- 뿔라오)

: 그런데 각자 일이 있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น้ำ: 迪ฉันได้ยินมาว่า บางติดงาน แต่บางก็ว่าง

(나-ㅁ) (디찬 다이 인 마- 와- 바-○ 뜻 응아-ㄴ 때- 바-○ 꺼- 와-○)

: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일이 있지만, 일부는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저로서는 어디든 좋은데요.
- 먹어도 돼고, 안 먹어도 돼요.

- 요즘은 뭐든지 다 비싸졌다.
- 누구든지 모두 다 그녀를 좋아한다.

- 우리 회사는 각자 일한다.
- 시장에서 사온 망고는 일부는 익었고, 일부는 안 익었다.

<태국의 금기>



(출처: <https://pixabay.com/th/illustrations/%e0%b8%a3-%e0%b8%a1-%e0%b8%a1-%e0%b8%a3-%e0%b8%a1-%e0%b8%a3-1426591/>)

각 나라마다 혹은 문화권마다 금기시하는 사항이 있다. 태국에도 작지만 사소한 몇가지 금기사항이 있으니 다음의 사항들을 알아두면 태국인을 대할 때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한 사람 앞에서 개봉하지 않는다.

태국인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을 사갔는데, 집주인이 이를 개봉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태국인은 선물을 한 사람이 돌아간 뒤에 개봉하곤 한다. 만약 태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를 개봉하고 싶다면? 선물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포장을 뜯어볼 수 있다. 요즈음에는 태국인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 태국인에게 선물할 때 피해야 할 것

태국인에게 선물할 때 피해야 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검은 색 옷, 손수건, 시계, 사진, 브로치, 빗, 꽃병 등 유리로 된 물건, 칼 등 날이 있는 물건 등은 피하도록 한다. 특히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날이 있는 물건을 선물로 주고 받을 때는 작은 금액의 돈이라도 지불하여 ‘사는 행위’를 하곤 한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금기사항도 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아픈 사람의 병문안을 가거나 장례식에 가는 것을 피한다. 다른 점은 임산부가 낚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과 태국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슷하다. 이러한 금기는 과거 집의 구조상 문지방이 높았던 데에서 기인한 생활 상의 금기로 이해할 수 있다.